

2026년 일본 황금연휴 (골든위크) 해외여행 동향

'26. 4. 23.(목) / 한국관광공사 도쿄지사

- ▶ (연휴 여건) **최장 12일 장기연휴**가 가능하나, 경기 불확실성 및 고물가에 따른 방어형 소비 뚜렷
- ▶ (시장 흐름) 소비 억제 분위기 속, 해외여행 수요는 전년比 호조(8.5%↑)를 보이며 회복세
- ▶ (韓 인기) 여행업계 예약 순위 압도적 1위, 유류할증료 인상(5월~) 전 '막바지 예약' 수요 급증
- ▶ (여행 트렌드) 비용比 효율을 중시하는 '실속형' 소비와 개인의 '취향 특화형 체험' 선호 가속화

□ 총괄

- (황금연휴 기간) 기본적으로 5연휴(5. 2~5. 6.), 주중 휴가를 활용하면 4. 29.(수) ~ 5. 10.(일) 기간 중 **최장 12연휴** 가능
- (참고) '25년의 경우 주중 휴가를 연계하면 **최장 11연휴**

< 일본 황금연휴 ('26년 4~5월) >

일	월	화	수	목	금	토
26	27	28	29 쇼와의 날	30 (휴가)	1 (휴가)	2
3	4	5	6	7 (휴가)	8 (휴가)	9
헌법기념일	녹색의 날	어린이날	대체공휴일			
10	11	12	13	14	15	16

- (전체 소비 트렌드) 가계 수입은 증가했으나 중동 정세 불안 및 지속되는 고물가에 따른 실속형 방어 소비 경향 강화
- (해외여행의 '이상'과 '현실' 괴리) 메이지야스다생명 발표 '골든위크 계획' 1위 자택 휴식(46.7%)이 작년에 이어 1위, 2위는 국내여행(14.4%)이 차지했으나 해외여행은 '이상적인 계획(9.2%)' vs '실제 예정(1.2%)' 사이의 간극이 무려 8.0%p로 해외여행 단념 현상 뚜렷

- (보수적 소비 심리 심화) JTB 조사 결과 ▲가계에 여유가 없다 (25.2%), ▲생활비 절약 중(19.0%), ▲취미·여행 등 비용을 우선적으로 감축(17.2%)하려는 방어적 태도가 강하게 나타남
- (여행수요) 단, 여행 부문은 전년比 소폭 증가하며 견조한 회복세를 유지하는 한편 여행방식은 비용 대비 효율 중심으로 변화하는 양상
 - 日 대표 여행사 JTB 발표에 따르면, '26년 황금연휴 기간 중 총 여행자수는 2,447만 명(전년比 101.9%), 총 여행 소비액은 1조 2,876억 엔(전년比 101.1%)으로 회복 경향
 - 단, ▲(국내여행) 2,390만 명(전년比 101.7%) 및 1인당 평균비용 46,000엔(전년比 97.9%), ▲(해외여행) 57.2만 명(전년比 108.5%) 및 평균비용 329,000엔(전년比 102.2%)로 국내여행이 전체의 97.7%를 차지하며 시장을 주도하는 가운데, 해외여행 또한 전년比 두 자릿수 가까운 성장률(8.5%)을 기록하며 호조
- (여행 가치관의 변화) 세대·연령을 막론하고 정형화된 '관광' 중심에서 개인의 관심사를 반영한 '취향 특화형 체험' 선호 가속화
 - (공통 지향점) 일상에서 벗어난 '비일상적 공간(32.5%)'과 해당 시기 및 장소에서만 가능한 '특별한 체험(24.3%)'이 여행지 선택의 최우선 기준
 - (액티브 시니어) 역사·문화·자연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를 통해 개인의 지적 욕구를 충족하는 '학습 및 자기계발형' 여행 가치 부여
 - (잘파세대) 덕질, 성지순례 등 개인 취향을 극대화하거나 디지털 디톡스·수면 투어 등 자기 회복을 도모하는 '개인 맞춤형 테마' 몰입
- (인기 목적지) 한국을 필두로 대만, 태국 등 아시아 근거리 지역이 시장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한편, 성장률 측면에서는 구미주권이 상대적 우세를 보이며 수요 다변화 양상 → JTB, HIS, 익스피디아, 레이와트래블 등 유력 여행업계 해외여행 예약 압도적 1위 '한국'

- ('서울'을 넘어선 지역 포트폴리오 확장) HIS, 익스피디아 등 조사 결과 서울 外 부산, 인천, 제주 등 한국여행 목적지 다변화 (익스피디아, 서울에 비해 합리적인 비용으로 체류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'숨겨진 가성비 여행목적지'로 1위 '부산', 2위 '인천' 선정)
 - (유류할증료 인상 영향) 日 국적 항공사의 유류할증료 인상(5월 발권분부터 조기 적용) 및 韓 LCC 할증료 인상 소식이 보도되며 예약을 서두르는 '막바지 예약' 수요 급증, 황금연휴 등을 이용하여 미리 다녀오려는 움직임이 한국 노선을 중심으로 두드러짐
- (출발일자) 4. 25.(토) 또는 4. 29.(수)에 출발하는 '원거리 수요'와 5. 2.(토) 및 5. 3.(일) 등 본격적인 연휴에 맞춘 '근거리 수요'로 양분

< '26년 황금연휴 예약동향 순위 (괄호 안은 전년 순위) >

순위	JTB (국가)	HIS (도시)	익스피디아* (도시)	레이와트래블 (국가)	한큐교통사 (국가)
1	한국	서울 (1)	부산	한국 (2)	유럽
2	대만	타이베이 (2)	인천	대만 (1)	대만
3	중국	호놀룰루 (4)	마닐라	베트남 (9)	한국
4	홍콩/마카오	방콕 (3)	가오슝	호주 (7)	베트남/캄보디아
5	미국/캐나다	제주 (-)	타이난	하와이 (6)	태국
6	태국	부산 (5)	신베이	태국 (3)	-
7	유럽	싱가포르 (7)	호치민	홍콩 (4)	-
8	싱가포르	홍콩 (6)	하노이	싱가포르 (8)	-
9	베트남	다낭 (11)	세부	필리핀 (10)	-
10	필리핀	파리 (14)	파타야	괌 (5)	-

* 익스피디아의 경우 '숨겨진 가성비 여행지' 순위만 공개

붙 임: 참고문헌 1부. 끝.

- 도쿄신문, 익스피디아 2026년 골든위크 여행동향 발표 (2026. 3. 12.)

<https://adv.tokyo-np.co.jp/prtimes/article130311/>

- JTB, 2026년 골든위크(4월 25일~5월 7일) 여행동향 (2026. 4. 2.)

https://www.jtbcorp.jp/jp/newsroom/2026/04/02_jtb_2026gw-travel-trend-outlook.html

- HIS, 골든위크 여행예약동향 (2026. 4. 2.)

<https://www.his.co.jp/news/20755.html>

- PR TIMES, 한큐교통사 2026년 골든위크 예약동향, 해외여행 유럽, 아시아 호조, 전년 대비 1.1배, 국내여행 전 방면 전년 대비 1.3배 (2026. 4. 7.)

<https://prtimes.jp/main/html/rd/p/000000628.000007099.html>

- 마이니치신문, 저축액 역대 최고지만.. 올해 골든위크 예산은 '0엔'이 최다 (2026. 4. 17.)

<https://mainichi.jp/articles/20260416/k00/00m/020/311000c>

- 레이와트래블, 2026년 골든위크 해외여행동향 발표 (2026. 4. 22.)

<https://www.reiwastravel.co.jp/news/260422>